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23(월) ~ 2022.5.27(금)

제공일시 2022 06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23(월) ~ 2022.5.27(금)

제공일시 2022 06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세계경제포럼 개막, 환경 의제 ‘에너지 전환과 넷제로’

- 2년만에 대면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연차 총회에서 환경 의제로 에너지 전환과 넷제로(순 온실가스 배출량 0)가 중요하게 다뤄짐
- 올해 포럼의 주제는 ‘전환기의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며 기후 분과에는 존 케리 미국 백악관 기후 특사, 알록 샤르마 COP26 국제 기후회의 의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뵘게 브렌데 WEF 포럼 회장, 빌 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의장 등이 참석
- 24일 열리는 넷제로를 향한 가속화 기자간담회 세션에서는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동시에 순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 긴급 조치를 살펴봄
- 기업 ESG 경영과 관련한 세션 중 ‘글로벌 ESG 표준’ 세션에서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초안(IFRS)에 대한 도입 방안이 논의

(데일리임팩트 2022.05.23.) 이승균 기자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

2. “천연가스·수소가 탄소중립 미래” 세계가스총회 막 올랐다

- 엑스모빌·BP·셸 등 글로벌 주요 가스기업과 SK, 현대차, 포스코, 두산 국내외 460여개 기업이 참가한 제28차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공식 개막함
- “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조명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공유
- 이번 총회는 이전 총회와 달리 수소산업도 다루고,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

(머니투데이 2022.05.24.) 민동훈 기자
<https://www.et.co.kr/news.php?no=202205241121230017>

3. EU집행위원 “EU 공동채권, 한국기관들도 관심…매력적 자산”

- EU 집행위원회가 EU 경제 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8천억유로(1천7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넥스트 제너레이션 EU·NGEU) 마련 계획을 발표함
-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한국은행과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EU 경제회복기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은은 이미 EU 공동채권에 투자한 적도 있다”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관련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22.05.22.) 이미령 기자
<http://www.yonhap.co.kr/news/196222202021459302?qt=125n>

1. B7 "G7은 독일 솔츠의 기후클럽 방침 따라야" 촉구

- G7 국가*의 경제단체협의체인 비즈니스7(B7)이 25일, **G7은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제안한 '국제기후 클럽(ICC) 방침에 맞춰 자국 기후보호 목표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딜라이트 2022.05.26) 박피터슨 기자
<http://www.dlight.co.kr/news/article.html?idxno=3039>

- 솔츠 총리는 '다보스 어젠다 2022'에서 G7 국가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기후클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G7정상회의 의장국이 독일이라, 국제기후클럽은 핵심사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G7 국가의 기업 및 산업 연합체의 모임인 B7은 2007년 BDI 주도로 결성됐는데, 이후 친환경 원자재 추구 등 지속 가능한 부문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과 다양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이 회원국

2. 기후변화 4대 지표 역대 '최악 성적표'...최고의 해법은 '신재생에너지'

-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현재 기후 4대 핵심지표인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부문에서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하여 최악의 성적표를 맞이함

(이넷뉴스 2022.05.24) 문경아 기자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html?idxno=916>

- 세계기상기구(WMO)는 온실가스 농도가 역대 최고치라며, 전 세계 산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사실상 효과는 미미하다고 우려했으며 최악의 기후 성적표에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의 기후붕괴를 막을 가장 적절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음

- WMO를 비롯해 EU도 신재생에너지는 기후회복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며, 유럽국들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구축 지원금을 확대하고 기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5% 상향 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있음

3. MS, 알파벳(구글), BCG 탄소제거 약속 발표

-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퍼스트무버연합*'의 **1억 달러(1238억원)의 탄소제거 투자 공약**이 이뤄진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은 공동으로 4억 달러(4955억원)를 탄소제거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2030년까지 10만톤의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ESGToday 2022.05.25.)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microsoft-alphabet-bcg-announce-major-carbon-removal-commitments/>

- 이들은 특히 대기중 탄소 포획과 제거 기술이 현재는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기후기술의 핵심도구라고 보고 있으며 최근 국내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다보스포럼에서 '퍼스트 무버 연합'에 검토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짐

*퍼스트무버연합은 지난해 11월 COP26에서 출범해 특히 철강, 알루미늄, 해운, 트럭운송, 항공을 포함해 특히 어려운 분야의 청정기술에 관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제거 솔루션을 확장하는 이니셔티브로, MS와 알파벳, EY, 페덱스, 포드 등 50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1. 세계 올겨울 천연가스 대란 우려...“아시아·유럽 확보 경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번 겨울 가스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옴
- 수입국들은 여름 동안 다음 겨울 성수기에 대비해 LNG를 비축하는데, 올해는 이미 비축 작업 시작됨
-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내년 초 인도분까지 확보 중이며, LNG 공급업체들은 아시아로 가던 물량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유럽 쪽으로 돌리고 있음

(연합뉴스 2022.05.24) 차병섭 기자
<http://www.yna.co.kr/view/A920220524130000099001325n>

2. ‘원자재값 급등’에 전기차 줄인상...“배터리 가격 20% 이상 오를 것”

-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 포드의 경우 올해 원자재 구입 비용을 당초 15억 달러 선으로 책정했지만, 현재 40억 달러까지 2배 넘게 올려 잡았음
- CNBC는 21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향후 4년간 배터리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전기차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SBSBiz 2022.05.23.)
<https://biz.s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

3. ‘러시아 리스크’ 부담...조선업계, 대규모 계약해지 우려

-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낭보에 비상이 걸림
-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러시아 금융 제재 여파로 러시아 수주물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됨
- 업계는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계약해지된 선박들은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유지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프라임경제 2022.05.24) 박지혜 기자
<http://www.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23(월) ~ 2022.5.27(금)

제공일시 2022 06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금융상품 공시 규정안” 발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 제공과 함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등의 ESG 허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ESG 금융상품의 새로운 공시 규정안(ESG Disclosures)’을 25일(현지시간) 발표
- SEC가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표준화된 ESG 정의(definition)와 기준의 부재로 ESG 투자자들이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음
- 최근 ESG 관련 금융 상품 및 자문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맞춰 투자자의 ESG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음. 더불어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ESG 투자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마케팅화해 ESG 투자 규모를 견인
- 핀테크 기업인 브로드릿지 파이낸셜 솔루션(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은 펀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7조 달러(8670조원)에 육박했으며 2030년이 되면 4배가량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이같이 ESG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의 부재’와 ‘그린워싱 리스크’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투자 수익과 함께 ESG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길 원함. 하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통용되는 ESG 정의와 공시 방안, 전략 등의 표준(standardization)이 부재해, ESG 투자 운용사와 자문사가 제시하는 ESG 정의 등이 제각각임
- 또, ESG 투자에 맞춰진 공시 요건과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기 때문에, ESG 전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기준 등에도 운용사 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 때문에 ESG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이러한 표준안의 부재는 그린워싱 리스크도 가중시키고 있음. 공시 등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늬만 ESG인 투자상품이 거래될 수 있기 때문. 투자 운용액 중 극히 일부만 ‘친환경’ 사업에 투자됨에도 펀드명 등에 ESG를 붙인 금융상품이 허다함
-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SEC은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ESG 금융 상품의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새로운 공시 규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
- SEC가 제시한 새로운 공시 규정안은 거래소에 등록된 금융사(운용사), 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문사(investment advisers)를 비롯해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사에 적용. 즉, ESG 금융상품을 만들어 운용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모든 금융업체들은 규정안에 따라 ESG 공시를 이행해야 함. 금융업체들은 투자 상품 안내서, 연례 보고서 또는 자문 브로셔 등에 ESG 상품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특히, SEC은 ESG 상품별 공시 접근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금융상품을 크게 △통합펀드(Integration Funds) △ESG중점펀드(ESG-Focused Funds) △임팩트펀드(Impact Funds)로 구분해 각각의 공시 방안을 규정안에 담았음

(SEC, 2022.5.25)
<https://www.sec.gov/news/press/2022/22171>

(ESG today, 2022.5.25) Mark Segal
<https://www.esgtoday.com/sec-targets-greenwashing-with-new-esg-disclosure-rules/>

- 먼저, 비(非) ESG 금융 상품에 ESG 요소를 함께 넣는 ‘통합펀드’의 경우, ESG 요소가 투자 과정에 통합되는 방식이 설명되어야 함. 즉, 투자되는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어떤 ESG 요소가 개선되고 지원되는지 등이 공시에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
- ESG 요소가 강한 ‘ESG중점펀드’의 경우, ESG 전략과 함께 각 과정의 이행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ESG 전략 유형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다른 펀드들과 쉽게 비교가능하도록 공시되어야 함
- 재무적 수익과 함께 투자 대상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impact)을 고려하는 ‘임팩트 펀드’는 목표로 한 임팩트 창출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개해야 함